

### 전북대 유도팀 “신입생 뽑아주세요”

#### 김소리 선수 전국체전서 동메달 획득 2019년에도 2명의 선수만 활동

“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기쁨은 잠시, 마냥 행복할 수 없었다. 후배들과 동고동락하며 훈련을 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막을 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 값진 동메달을 전북 선수단에게 선물한 전북대학교 유도팀 김소리 선수의 이야기다.

김소리 선수는 주재희 선수와 함께 올해 초 체육 특기생으로 전북대에 입학했고 이번 전국체전에서 한 체급 높여 +78kg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 당당히 시상대에 올랐다.

또 김소리 선수와 주재희 선수 모두 국가대표 상비군에 소속 돼 있는만큼 실력도 출중하고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왔다. 학교측에서 내년 유도 종목 관련 체육 특기생을 뽑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감독과 선수들은 안타까워하고 있고, 내년에도 단 2명의 선수들만 학교 강당과 전라북도체육관, 전북체고 등을 전전하며 훈련에 임해야 한다.

또 신입생을 뽑지 않으면서 단체전 출전은 고사하고 훈련 환경이 좋아질 리 만무하다. 김 선수는 +78kg, 주 선수는 +52kg 체급에서 뛰고 있다.



김소리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체급이 다르다보니 훈련 파트너가 될 수 없어 실전 훈련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다른 팀들과의 합동훈련이 아닐 경우 개인 훈련에만 치중할 수 밖에 없다.

전북대 유도팀 감독은 “올해 유도팀이 창단하면서 학교측에서 매년 선수들을 뽑아주기로 했었지만 내년(2019학번)은 물거품이 됐다”며 “좋은 선수들이 우리 대학으로 오려고 하지만 기회가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선수들을 학교측에서 뽑아주면 열심히 훈련해 용인대와 한국체대 등과 함께 유도 명문대 반열에 오를 수 있다”며 “더 좋은 내일을 위해 현재 매트에서 훈련이 한창인 2명의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 순창향교, 제20회 순창향교 유림지도자 기로연 열려

23일 순창향교(전교 김갑용)에서 경료된 상상을 높이고 옛 전통문화를 전승 보존시키고자 ‘제20회 순창향교 유림지도자 기로연’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각 사회단체 지도자와 유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식전공연으로 농악 및 시조 경창이 참석자들을 맞이했으며, 본 행사에는 80세 이상의 순창향교 유림지도자들을 초청해 그동안의 공적을 치하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이어 순창향교 발전에 기여한 순창군정 노홍균 문화예술계장에게 감사장을, 노 부모를 극진히 섬긴 히시아마 히로코세와 아마무제 가카리세에게 효부상을 시상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 군산시 소통하는 세무행정, 찾아가는 세금교실 운영

군산시는 지난 19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대한노인회 군산지회를 방문해 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세금교실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3월 배치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과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가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유용한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세무 상담을 병행함으로써 납세자 편의 증진과 시민 알권리 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민 마을세무사와 오재관 마을세무사는 이번 강의를 통해 재산과 관련된 양도 소득·증여·상속세에 대해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강의 후에는 증여와 관련된 세무 상담도 진행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군산시는 납세자의 세금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세사업자, 정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정읍시, 다문화가족 문화탐방 가져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23일 다문화가족 38명을 초청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여수시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결혼이주여성들과 가족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므로써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다문화가족들은 예술랜드와 조각공원을 관람하고, 가족별로 해양 레일바이크를 탑승하는 등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탐방에 참여한 다문화가족들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체험과 관람을 하게 되어 좋았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한편 정읍시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수질환경 보전회 간담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23일 오전 지사 회의실에서 2018년도 수질환경 보전회 거버넌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질환경 보전회는 공사 주도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농업용수 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이며 거버넌스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수질개선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상시 수질관리를 통한 오염예방적 수질보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저수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으로 효과성 제고를 논의했다. 또한 공사의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홍보와 수질관리 추진계획 설명 및 2018년도 농업용수 수질관리를 위한 예산확보 및 공사와 지자체간 수질오염 시설별 관리 단속방안이 논의되었다.

공사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내 고향 물 살리기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백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에 전기압력밥솥 20대 전달

진안군 백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전진기)는 최근 홀로 사는 노인 and 취약계층 가구에 약 400만원 상당의 전기압력밥솥 20대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협력 배분사업비로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진행했다.

위원들은 지난 7월 각자 어려운 가구를 발굴·공유하고, 대상자 선정 회의를 통해 최종 20가구를 선정했다. 선정된 가구는 위기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지만 공적지원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 노인 가구와 이웃의 관심이 필요한 독거노인 가구다. 각 가정의 사정을 잘 아는 이웃들이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물품을 전달해 의미가 더 컸다.

전진기 위원장은 “이웃의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지어 드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에게는 “지원 사업에 동참해 주어 감사드리며, 소외된 이웃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 내년에는 미리 수요 조사를 진행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일자리 창출

단계별 고용창출효과	건설(3년간)	운영(20년간)
실증단지(60MW)	600명	60명
시범단지(400MW)	2,900명	200명
확산단지(2,000MW)	13,500명	1,000명

서남해 2.5GW 해상풍력 효과: 7.6만명 일자리창출  
한국해상풍력은 직원채용시 발전단지 지역가정 적용

##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은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어민과 공존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합니다.
- 홍보관 운영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섭니다.

#### 어민과 공존, 지역발전

해상풍력-수산업 공존 개념도

서남해해상풍력실증단지 근방 수산업공존 플랫폼

관광산업화 사례    단지내 통항 사례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

홍보관 개관(2018.11중)

**한국해상풍력(주)**  
Korea Offshore Wind Power